

# 파라과이 민족국가 형성에 있어 과라니어의 역할\*

구경모\*\*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I. 원주민 언어와 민족주의
- II. 과라니어의 기원과 현재
  - II.1. 과라니어의 기원
  - II.2. 과라니어의 현재
- III. 링구아 프랑카에서 민족 언어로
- IV. 과라니어의 국가 공용어 지정과 민족주의
  - IV.1. 스페인어 장려와 실패
  - IV.2. 과라니어의 국가 공용어 지정
- V. 결론

## I. 원주민 언어와 민족주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언어의 보호와 공용어 정책은 국가 통합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원주민의 문화적 유산이 식민지를 거치면서 파생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A00003). 또한 이 연구는 2009년 5월 22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과라니어를 통해 본 파라과이의 민족주의”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때 귀중한 논평과 토론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Gyoung-Mo Gu(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gmgu@pufs.ac.kr), “Función del idioma guaraní en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del Paraguay”.

된 인종 및 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이자 각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원주민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스페인어와 함께 원주민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채택하거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페루는 1975년에 케추아(Quechua)어를 시작으로 다른 원주민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지정했으며, 파라과이는 1992년에 파라니(Guaraní)어를 국가 공용어로 인정하였다. 멕시코는 2001년 나우아틀(Náhuatl)어를 포함한 65개의 원주민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지정하였으며, 볼리비아는 2009년에 케추아어와 아이마라(Aymara)어를 포함한 37개의 원주민 언어를 스페인어와 함께 국가 공용어로 인정하였다. 원주민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지정한 4개국 이외에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그들의 언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있다.

여타의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과 달리 파라과이는 ‘명목적인 공용어’가 아닌 ‘실제적인 공용어’로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파라니어<sup>1)</sup>를 사용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메스티소와 삼국동맹전쟁 이후에 이주한 유럽계 이민자<sup>2)</sup>들조차도 파라니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파라니어는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있어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구별시

- 1) 1952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파라니어 단일화자는 약 2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0.1%를 차지하며, 파라니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화자는 53.8%, 스페인어 단일화자는 4.7%(다른 외국어 단일화자 1.4% 포함)였다(Morales 1998). 그러나 파라니어 단일 화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도인 아순시온에서 파라니어 단일화자는 1950년에 16.5%, 1982년에 5.8%, 1992년 2.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김경희 2007, 45, 재인용). 소수의 스페인어, 파라니어 단일 화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파라과이 사람들은 파라니어와 스페인어를 혼용하여 구사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이러한 언어의 활용을 조파라(yopará)라고 부르며, 조파라는 파라니어로서 혼합(mezcla)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파라니어는 ‘y’를 ‘z’으로 발음한다. 파라과이에서는 파라니어의 영향으로 스페인어의 ‘y’도 ‘z’으로 발음한다.
- 2) 삼국동맹전쟁(Guerra de la Triple Alianza)으로 인한 막대한 인구 손실을 메우기 위해 파라과이 정부는 이민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유럽계 이주민들이 파라과이로 재이주 하였다(구경모 2008, 13-21).

켜주는 문화적 요소임과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파라니어의 국가 공용어 사례는 유럽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의 형성 혹은 민족주의의 발생에 있어 언어가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앤더슨(2003, 47)의 주장에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앤더슨과 홉스봄(1992) 류의 근대주의 민족주의자들의 논의처럼 민족이 상상과 발명의 산물 혹은 엘리트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라니어가 식민시기 스페인계 정복자들인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다는 점, 그리고 파라과이가 독립한 이후의 국가 정책과 인디헤니스모(Indigenismo)의 확산에 따른 지식인 성찰 및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의 수단으로서 파라니어와 그 문화가 보호된 점은 근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엘리트에 의한 정치적 산물로서 민족주의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니어를 통해 근대주의적인 민족주의를 비판하기보다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주의 시각은 파라과이 민족주의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파라과이의 민족주의는 근대주의 입장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발생 시기와 주체를 넘어 폭넓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근대주의 입장의 학자들은 민족주의 분석에서 있어 근대 이후에 파생된 물질문화와 엘리트 집단에 한정하고 있다(Smith 2009, 13-21). 특히 앤더슨(2003, 47-65)의 논의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가 인쇄술과 지방 관리들의 순례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대 이전의 원주민 역사와 문화가 민족국가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측면은 결여되어있다.

멕시코의 경우만 하더라도 독립이후 아스테키즘(aztequism)으로 대표되는 원주민 역사의 동원과 재해석이 다인종사회인 멕시코 사람들의 통합과 국민주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김세건 2005, 213-224)은 원주민 문화가 민족국가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하려는 파라과이의 파라니어도 식민시기 스페인어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언어로 살아남아 민족국가를 이룩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 분석에 있어 근대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각은

에스노-심볼리즘(ethno-symbolism)을 들 수 있다.<sup>3)</sup> 에스노 심볼리즘은 에스닉(ethnic)적인 요소, 즉 원주민의 전통과 기억, 가치, 신화를 비롯한 문화 유산에 의한 집합의식이 민족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Smith 2009). 스미스(2009, 14-21)는 이러한 민족국가 형성에 동원된 에스닉적 요소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엘리트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스노 심볼리즘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파라과이 민족 국가 형성에 있어 원주민 문화 중 과라니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언어 이외에 신화와 의례, 음식, 음악 등 다양한 원주민 문화를 통해 파라과이의 민족국가 형성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나, 이 글에서는 과라니어를 통해서만 분석하고자 한다. 과라니어의 경우는 파라과이를 대표하는 민족의 상징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언어 사례에서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라니어로써 민족국가 형성을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상기의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근대 이전의 원주민 문화가 민족 국가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을 과라니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원주민 언어인 과라니어가 유일하게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족을 상징하는 언어로 성장한 원인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스페인어의 끊임없는 침투에도 불구하고 과라니어가 민족을 상징하는 언어로 성장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독립 이후에도 과라니어가 살아남는 과정과 정치집단에 의해 민족주의의 도구로 쓰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측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과라니어가 파라과이 민족을 표상하는 언어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

3) 민족주의 이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원초주의 혹은 근원주의(primordialism)와 영속주의(perennialism)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주의(modernism)이다. 이 두 이론의 절충적인 지점에 에스노 심볼리즘(ethno-symbolism)이 있다(Smith 1998, 222-225; Özkirimli 2000, 60-61). 에스노 심볼리즘을 원어로 기술한 것은 아직 이와 관련된 정확한 번역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II. 과라니어의 기원과 현재

### II.1. 과라니어의 기원

과라니어는 원래 아바네(avañe'ê)라고 불렀다(Godoy 2004, 249). 아바(avá)는 사람을 의미한다. 스페인계 정복자들이 침입하기 이전에 과라니들은 스스로를 아바라 칭했다. 네(ñe'ê)는 말하다(hablar)라는 뜻으로 언어를 의미하였다. 즉 아바네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뜻이다.<sup>4)</sup>

인류학자인 수스닉(1982, 22)에 따르면, 과라과이에 살고 있는 과라니는 기원전 500년경 아마존 지역에 있던 아바-아마소니코(avá-amazónico)<sup>5)</sup>의 후손들이다. 아마존 유역에서 이주한 과라니의 선조들은 주변의 종족들의 복속하여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였고, 그들의 언어는 과라과이 지역에서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자리 잡게 되었다(Zucollio 2002, 23). 바로 이들의 언어가 과라니어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과라니의 본래 이름인 아바가 과라니로 불리게 된 것은 예수회 선교사인 루이스 데 몬토자가 과라니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작되었다(Susnik 1982, 23). 즉 과라니는 식민지 시기 스페인 세력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스페인 식민 세력들이 과라과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과라니어의 원형인 아바네는 두 개의 변형된 언어로 구분된다. 그 하나가 과라니 크리오요(guaraní criollo) 혹은 과라니 파라과조(guaraní paraguay)이며, 다른 하나가 과라니 헤수이티코(guaraní jesuítico) 혹은 과라니 클래식코(guaraní clásico)이다(Susnik 1982; Melià 1993).

과라니 크리오요는 아순시온에 도착한 스페인계 정복자들이 원주민과 접

4) 각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2005년에 출판된 과라니어 사전인 Gran Diccionario Avañe'ê Ilustrado 참조.

5) 아바 아마소니코는 원시 투피 과라니(paleo-tupi-guaraní)와 동일하지만, 수스닉(1982, 22)은 원시 투피 과라니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투피 과라니라는 용어가 식민지 정복세력들이 붙인 용어이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 이전의 원주민들을 지칭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수스닉이 그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축하면서 생성된 것으로서 과라니어와 스페인어가 교란된 형태를 보이며, 이 언어는 과라카이 지방(Provincia del Paraguay)<sup>6)</sup>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Zuccollio 2002, 25-27). 도브리소페르(Dobrozhoffer)는 1783년에 발간된 그의 책에서 과라카이의 언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여자와 아이들, 일반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곧잘 하지만 여전히 과라니어를 모국어처럼 쓴다. 실제로는 두 언어가 섞여있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과라니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세 번째 언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쓰고 있다(Meliá 1993, 247).

도브리소페르가 묘사한 글을 보면, 과라니 크리오요는 소수의 원주민을 제외한 대다수의 과라카이 사람들이 구사하는 과라니어 방식인 조파라의 기원임을 알 수 있다.

과라니 헤수이티카는 예수회가 레дук시온<sup>7)</sup>을 건설하면서 원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과라니 하위 종족들의 방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과라니어의 원형에 가깝다(Zuccollio 2002, 30). 최초의 과라니어 출판물은 프란시스코회의 루이스 볼라뇨스(Luis Bolaños)에 의해 1607년에 출판된 『교리 문답 요약과 일상』(*Catecismo Breve y Cotidiana*)이라는 책이다. 그 후 프란시스코와 예수회 선교사들은 과라니어의 활자화와 표준화를 실시하여 과라니어 문법책과 사전을 편찬하게 된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선교사가 바로 예수회 선교사인 몬토자(Montoya)이다. 그는 과라니어의 알파벳과

- 
- 6) 1811년 과라카이의 독립을 기준으로 그 이전인 식민지 시기는 국가의 단계가 아니므로 ‘과라카이 지방’으로 쓰고 독립 이후는 ‘과라카이’로 쓰고자 한다.
- 7) 레дук시온(reducción)은 예수회가 원주민을 선교를 하기 위해 건설한 일종의 마을 공동체이다. 레дук시온에는 카빌도(cabildo)와 교회, 공동묘지, 작업장, 강당, 감옥, 식당, 원주민 숙소, 여관, 광장 등의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 마을은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로서 스페인계 정복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격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레дук시온은 17세기 중반까지 과이라 지방(과라카이 식민지방 정부에 속한 곳으로 현재 브라질의 과라나 주 경계와 거의 일치)에 주로 건설되었으나 포르투갈계 정복자들이 반데이란테(bandeirante)의 침입으로 인해 지금의 과라카이 미시온(Misión) 주와 아르헨티나의 미시온 주로 대거 이주하였다.

문법, 발음을 정리하였고, 1639년에는 『파라니어의 보물』(*Tesoro de la Lengua Guarani*)이라는 문법서를 처음으로 출간하였다. 1696년에는 『파라니의 어휘와 예술』(*Arte y Vocabulario de la Lengua Guarani*)이라는 사전을 출판하였다.

현재 일상의 언어로 쓰이고 있는 조파라는 파라니 크리오요에서 기원한 것이고, 활자와 문법은 파라니 헤수이티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학교에 배정된 파라니어 과목은 파라니 헤수이티카를 기본으로 교육한다.

## II.2. 파라니어의 현재

파라니어를 사용하는 원주민인 파라니는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브라질의 서남부 지역과 아르헨티나 동부지역, 볼리비아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파라과이에는 파라니를 포함하여 5개의 어족(familia lingüística)이 있다. 파라니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어족은 령구아 마스코이(Lengua Maskoy)와 마타코 마타과조(Mataco Mataguayo), 사무코(Zamuco), 파이쿠루(Guaicuru)가 있다. 각각의 어족은 하위 종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파라니의 경우는 파이 타브테라(Pai Tavyterä)와 브아 파라니(Mby-á Guarani), 아바 치리파(Avá Chiripá), 아체 과자키(Aché Guayaki), 치리과노(Chiriguano), 타이 피에테(Tapieté)등의 총 6개의 하위 종족이 있다(Bejarano 1980).

지리적으로 파라과이는 파라과이 강을 경계로 열대 삼림지대인 동부지역과 초원과 사막지대인 서부지역으로 나뉜다. 식민지 시기부터 파라과이의 중심지는 동부지역이며, 서부지역은 20세기 이후부터 메노니타(menonita)<sup>8)</sup>와 그 밖의 유럽계 이주민들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즉 파라과이의 역사와 문화는 동부지역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파라니는 이러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4개의 어족은 서부지역인 차코(Chaco)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원주민 수는 86,54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8) 메노니타는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폐쇄적인 혼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높다. 이들은 러시아계와 독일계로 20세기 초 파라과이에 이주하였고, 주로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으며,<sup>9)</sup> 그중에서 과라니가 46,215명이며, 령구아 마스코이가 21,502명, 마타코 마타과조가 13,762, 사무코가 3,587명, 과이쿠루가 1,474 명이다(Dgeec 2004b, 22). 과라니는 전체 원주민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파라과이에서 과라니어는 원주민인 과라니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는 메스티소들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라과이 사람들은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섞어서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나 사는 곳에 따라 두 언어의 사용 비율은 차이가 난다. 교육을 많이 받거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스페인어 사용 비율이 높으며, 교육 수준이 낮거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과라니어의 구사 비율이 높다.<sup>10)</sup>

### III. 령구아 프랑카에서 민족 언어로

파라과이에서 과라니어가 민족 언어로서 인식된 것은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방에서 일상 언어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앞선 2장에서 언급했듯이 과라니 크리오요는 아순시온에서 발생하여 식민시기에 파라과이 지방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이것이 확산된 구체적인 경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몇몇 학자와 여행자들의 기록을 통한 검증은 가능하다.

수스닉(1982, 67-89)의 주장에 의하면, 과라니들은 일부다처제 사회로 그들은 식민 정복자들에게 호의적이었다. 특히 그들이 접해보지 못한 도끼와 칼등의 철제류를 손에 넣기 위해 추장들은 그들의 딸과 부족의 딸을 정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혼인 연대를 통해 추장들은 철제류와 위세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복자들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20-30명의 과라니의 처녀와 혼인하였다.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메스티소이지만 원주민인 어머니와 함께 자라는 경우가 많아 과라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음

9) 파라과이의 인구는 5,163,198명이다(Dgeec 2004a, 25).

10) 스페인어와 과라니어, 조파라에 관한 연구 및 이중 언어 사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Melià 1995; 1997; Zuccolillo 2002; Penner 2005; 김경희 2007).

아사라(Azara)라는 여행자의 기록에서도 상기의 친족관계에 의해 과라니 크리오요가 스페인어보다 일상적인 언어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도시(아순시온)를 세운 스페인계 정복자들은 원주민 여자와 결혼하였고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 그들의 아이들은 자연스레 어머니의 언어(과라니어)를 배운다. 스페인어는 단지 원주민에 비해 인종적으로 고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냥 간직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파라과이 지방에 남아 있는 스페인계 정복자들은 그것(스페인어의 고귀함)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스페인어)는 잊어버렸고, 대신에 과라니어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Melià 2004, 117, 재인용).<sup>11)</sup>

다수의 원주민 아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스페인어 정복자는 과라니어의 비중을 높이거나 과라니어만 전적으로 사용하였다. 스페인계 정복자들은 과라니어를 적극적으로 구사하였으며, 그들의 후손인 크리오요와 메스티소도 과라니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현재의 수도인 아순시온 지역에서 탄생한 과라니 크리오요는 아순시온 정복자들의 후손들에 의해 파라과이 식민 지방에 빠르게 이식되었다. 즉 과라니의 친족제도가 과라니 크리오요의 탄생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예수회의 활동도 과라니 크리오요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루이스 볼라노 신부의 번역을 도운 두 명의 크리오요인 후안 데 산 베르나르도(Juan de San Bernardo)와 가브리엘(Gabriel) 신부의 증언은 초기 식민시기에 크리오요의 과라니어 사용이 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크리오요) 교리문답과 기도를 할 때 원주민 언어(과라니어)를 쓴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이해하기 쉽고 항상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

11) 이 인용문은 아사라가 1620년 12월 작성된 예수회 저자의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며, 그 보고서의 저자는 마르시엘 데 로렌사나(Marciel de Lorezana) 신부인 것 같다(Melià 2004, 117)고 밝히고 있다.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할 것 같다(Melià 2004, 117 재인용).

예수회가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역사적 배경은 과라니어가 활자어의 지위를 획득하고 식민지 파라과이 지방의 일상 언어로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과라니어가 근대적인 언어로 체계화된 것은 원주민들이 교리문답과 세례를 할 때 사용되었던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자 선교사들이 원주민 언어를 통해 선교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Melià 2004, 43-47).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1567년 리마 종교회의에서 과라니어를 비롯하여 나우아틀어와 케추아어, 아이마라어를 선교를 위한 언어로 지정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한 원주민 집단의 언어였던 3개의 원주민 언어가 선교를 위한 언어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라니어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과라니어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한 대중 언어이자 민족 언어로 성장한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입지의 차이이다.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방은 남미대륙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금과 은이 존재하지 않아 스페인 정복자들의 유입이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수의 정복자들은 토착화되어 스페인어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대신에 과라니어가 파라과이 지방의 의사소통 언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두 번째는 예수회의 영향이다. 예수회는 원주민 자치 마을인 레독시온을 건설하여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였다. 특히 예수회는 본국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거부하며 대립함에 따라 지리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본국의 간섭을 덜 받는 파라과이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하였다. 1761년에는 13개의 예수회 레독시온에 전체 파라과이 지방 인구의 절반이상인 44,329명이 거주했으며, 레독시온 밖의 인구는 39,739명에 불과하였다. 예수회가 파라과이에서 축출된 후인 1799년에는 레독시온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 18,473명만 남았으며, 레독시온 외부의 인구는

89,597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Melià 1993, 243). 레독시온에서 유출된 과라니어 사용자들은 촌락과 도시에 정착하였고, 그로 인해 과라니어가 더욱 확산되었다.

세 번째는 교육시설의 부족과 인쇄술의 미도입으로 인해 스페인어의 보급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파라과이는 에르난다리아스(Hernandarias)<sup>12)</sup>가 1603년 본국으로부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지 거의 300년 지난 뒤인 1890년에 국립 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식민 시기에도 학교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예수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였다. 1767년 예수회가 축출당하면서 파라과이는 신학교가 아닌 근대교육시설을 원했다. 그러나 카를로스 3세는 아순시온에 예수회 신학교를 대신하여 아순시온 신학교(Colegio Seminario de Asunción)를 설립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González 1998, 281). 근대적인 교육시설은 이보다 한참 뒤인 1841년 국회에서 국립 중·고등학교(Colegio Nacional)의 전신인 문예학교(Academia Literaria)를 허가하면서 설립되었다(Cardozo 1996, 272). 이 자금은 산 카를로스 신학교(Seminario San Carlos)에서 출자하였다. 인쇄와 출판은 1844년에 시작하였다.<sup>13)</sup>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 뒤늦은 학교 설립과 인쇄술의 대두는 스페인어보다 구어체 경향이 강한 과라니어가 일상 언어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 하겠다.

앤더슨(2002, 94-98)은 크리오요 관리와 더불어 지방 크리오요 인쇄업자들이 만든 신문에 의해 지역의 독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졌고, 이로 인해 형성된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는 각 국가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인쇄술의 출현이 매우 늦었던 파라과이에서는 인쇄술이 아닌 다른 요소가 독립을 위한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12) 에르난다리아스는 크리오요의 후손으로서 처음으로 파라과이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오른 인물이다(Durán 1998, 190).

13) 물론 예수회가 18세기 초부터 인쇄와 출판을 했으나 내용과 대상이 주로 과라니어와 원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예수회가 파라과이에서 축출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Cardozo 1996, 158-160).

파라과이가 아르헨티나와의 통합을 거부하고 먼저 독립한 것은 파라과이가 이미 그들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정체성의 근원은 바로 과라니어였다. 즉 파라과이 지방 사람의 일상 언어인 과라니어는 다른 언어를 쓰는 식민 지방 사람들, 특히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와 브라질의 포르투갈어와 구분되어 파라과이의 경계를 규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중심에는 예수회 선교사와 원주민, 메스티소가 있었다.

## IV. 과라니어의 국가 공용어 지정과 민족주의

### IV.1. 스페인어 장려와 실패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방의 일상 언어였던 과라니어는 파라과이가 독립을 한 이후에도 파라과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담보하였다. 19세기 중반 파라과이를 다녀간 외국인들의 기록은 그 당시 과라니어의 일상 언어 기능을 잘 보여 준다. 이 당시의 여행가인 로버슨(Robertson) 형제는 기행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토착 언어인 과라니어가 스페인어를 쓸모없게 만든 것 같다. 상류계층이 아닌 파라과이 남자들은 유창하고 정확한 카스테야노(스페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알았다. 코리엔테스(Corrientes)<sup>14</sup>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스페인어를 조금 말한다. 여자들은 겨우 말할 정도이다 (Zuccolillo 2002, 49, 재인용).

1846년 파라과이를 여행한 그레이험(Graham)은 파라과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과라니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과라니어가 파라과이에서 일반

14) 코리엔테스는 현재 파라과이 남쪽 국경에 인접한 아르헨티나 영토이다. 이곳은 원래 파라과이 영토였으나 1865년에 발발한 삼국동맹전쟁에서 패한 후 아르헨티나에 복속되었다.

적인 언어이며, 스페인어는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어는 외국인만 사용하며, 시골지역은 스페인어에 대해서 무지하여 물 한 잔을 부탁하기 위해서도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멜리아는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듯이 1865년 삼국동맹전쟁까지 과라니어가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언어였다고 밝히고 있다(Melià 1992). 즉 파라과이는 과라니어, 과라니어는 파라과이라는 등식이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과라니어가 파라과이의 일상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정부는 끊임없이 스페인어 사용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파라과이 독립 후 초대 정권이었던 호세 가스파르 로드리게스 데 프란시아와 그 다음 정권인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sup>15)</sup> 특히 안토니오 로페스는 파라과이의 근대화를 위해 스페인어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한 사례로서 안토니오는 인종적 통합을 위해 원주민 마을인 타바(tava)를 철폐하고 원주민의 성(姓)을 스페인어로 바꿀 것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스페인어 사용 의무화 정책으로 19세기 중반부터 정부는 스페인어와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세우게 된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과라니어를 사용함에 따라 정부는 과라니어 탄압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대안의 하나가 수업 시간에 과라니어를 사용하면 벌을 주는 것이었다. 센투리온(Centurión)은 당시 학교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수업시간에 과라니어를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규율담당자가 어졌다는 표시로 구리반지를 주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구리반지를 가진 학생을 불러 모았다. 구리반지를 가진 학생은 4-5대의 회초리를 맞았다(Zuccolillo 2002, 54, 재인용).

15) 파라과이가 독립한 이후 첫 통치자이자 독재자였던 호세 가스파르 로드리게스 프란시아(José Gaspar Rodríguez de Francia)는 1816년부터 1840년까지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쇄국정책을 실시하였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과 지식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Carlos Antonio López)는 1844년부터 1862년 동안 통치권자로 재임하였다. 카를로스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루었으며, 이 시기는 파라과이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했던 때로 평가받고 있다.

스페인어 보급을 위한 국가의 강제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자 파라과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라니어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맨필드(Manfield)는 “모든 파라과조(paraguay) 남자와 여자들이 과라니어를 말한다. 다수의 낮은 계층은 다른 언어(스페인어)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식 언어가 스페인어라서 사람들은 과라니어를 점점 천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Zuccolillo 2002, 56, 재인용). 1920년대 수집된 과라니어 사용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과라니어를 어느 정도로 배격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두 언어를 사용하는 아순시온에서 태어났다. 나의 부모님들은 과라니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과라니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12살 때까지 과라니어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비록 우리들은 약간의 과라니어를 알았지만,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과라니어를 쓰지 않았다. 나는 등하교 길과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 그리고 운동할 때 과라니어를 배웠다. 동시에 프랑스어와 라틴어 문법도 배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을 할 때 비로소 과라니어를 잘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Morinigo 1990, 180).

스페인어 사용 정책과 가정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과라니어는 여전히 일상 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파라과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만한 학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스페인어 사용자가 과라니어 사용자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카르도소(1997, 366-401)에 따르면, 국립 중·고등학교는 1877년 수도를 비롯하여 비야리카와 콘셉시온, 필라르, 엔카르나시온 등의 4개의 도시에만 설립되었다. 의무교육은 1909년에 실시되었지만 학교가 부족하였다. 특히 4개 도시 이외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도 힘들었다.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결국 스페인어의 장려 정책은 과라니어 화자를 스페인어 화자로 돌리지 못한 채 원주민 문화에 대

한 차별과 열등감만을 가중시켰다. 이로 인해 과라니어는 비근대적인 언어로 비쳐졌고, 동시에 과라니어 사용 빈도에 따라 사람의 위계를 판단하는 현상을 심화시켰다.

정부의 과라니어 탄압 정책은 일부 스페인어 화자를 양성하긴 하였지만, 본래의 목적인 일상영역에서 스페인어 사용 증진은 이루지 못하였다. 오히려 정부는 국가 정책을 통해 과라니어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즉 과라니어는 오랜 동안 지속된 기층문화로서 국가의 통제나 관리에 의해 제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성장하였다.

#### IV.2. 과라니어의 국가 공용어 지정

정부의 스페인어 장려로 인해 과라니어는 정책적으로 소외받았지만, 스페인어가 과라니어를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1920년대 이후에는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과라니어를 비롯한 원주민의 문화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류학자인 베르토니(Bertoni)는 『역사 문서와 같은 과라니어』라는 책에서 과라니어가 파라과이 사람들을 통해 너무나 값지게 이어져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어떤 다른 언어도 과라니어처럼 민족의 친근한 삶과 정신을 나타낼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Zuccolillo 2002, 75-76, 재인용). 누녜스(Núñez)를 비롯한 민속학자들은 과라니의 신화와 민속을 연구했으며, 문학가들은 과라니어로 된 출판물을 발간하였다.

학문적 영역 이외에도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역임한 나탈리시오 곤살레스(1996)<sup>16)</sup>는 그가 저술한 책에서 파라과이의 국가 정체성을 건설하기 위해 과라니어를 재평가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라니의 문화와 언어가 바로 파라과이의 정체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파라과이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메스티소가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메스티소로 인식을 바꿔야

16) 나탈리시오 곤살레스(Natalicio González)는 1948년 8월 16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집권하였다. 이 당시는 1947년 내전 이후 자유당에서 홍색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로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1948년 6월부터 1954년 5월 스트로에스네르가 집권하기까지 약 6년간 6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어 장려 정책으로 인해 ‘천박한 언어’로서 인식된 과라니어는 일부 지식인들의 자각을 시작으로 ‘자랑스러운 언어’로 치환되기 시작한다. ‘자랑스러운 언어’ 만들기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국가 부문으로 확대된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인디헤니스모는 과라니어와 그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라니어 교육을 위한 학교와 학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베르토니는 1942년에 과라니 문화·언어 학교(Academia de la Lengua y Cultura Guaraní)를 설립하였다(Cardozo 1996, 455). 1944년에는 아순시온 국립대학의 인문대학(Escuela Humanidad)에서 과라니어를 교육하기 시작하였다(Torres 1997, 7). 인문대학은 4년 후에 철학대학(Facultad Filosofía)으로 확대 개편하여 과라니어 교육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1950년에는 과라니 예술가·작가·시인협회(Asociación de Poetas, Escritores y Artistas Guaraníes)가 조직되었다(Cardozo 1996, 455). 과라니어에 대한 관심은 국제회의를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1950년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투피 과라니어 회의(17)와 1953년 리우 데 자네이루의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브라질 인류학회가 대표적이며, 이 국제대회를 통해 파라과이 내부에서는 과라니어의 문화적 중요성을 한층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Torres 1997).

과라니어가 민간 부분의 장려를 넘어 국가 공용어로서의 기틀을 다진 것은 파라과이의 독재자인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가 재집권을 추진하면서였다. 그는 과라니어에 대한 공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헌법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비야그라(Villagra)는 스트로에스네르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라니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분석하였다(Zuccolillo 2002, 103, 재인용). 스트로에스네르의 과라니어 수정안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였다. 결국 그의 시도는 성공하였고, 재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1967년에 이루어졌다. 스트로에스네르에 의해 과라니어는 처음으로

---

17) 이 회의에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표가 각 2명, 에콰도르, 멕시코, 우루과이 대표가 각 1명씩 참가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언어로 인정받았다. 민간과 정부의 과라니어 활성화 목적은 달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과라니어가 공식 언어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이는 과라니어가 일상 언어의 수준을 넘어 국가가 인정하는 언어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스트로에스네르가 약 35년간의 장기 집권에서 물러난 후인 1989년에 집권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Andrés Rodríguez)는 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의 기제를 마련하기 위해 과라니어의 국가 공용어 지정을 적극 검토하였다. 그 이후 과라니어는 지속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고, 1992년 헌법 개정에서는 과라니어가 스페인어와 같은 지위의 국가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과라니어가 공용어가 되기까지는, 파라과이가 독립 할 당시 대중들의 언어 입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에 밀려나 천시 받던 일상의 ‘천한 언어’에서 국가와 정부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 민족의 상징인 국가 공용어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내포되어있다. 제도권에서 과라니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용어로 지정한 것은 식민 시기부터 과라니어가 일상 언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파라과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표상했기 때문이다.

과라니어의 공용어 지정 이후 정치가들은 과라니어를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과라니어의 정서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것이다. 민족의 표상으로서 과라니어의 활용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선거 유세나 방송 인터뷰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대목을 말할 때 과라니어를 구사하여 대중들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과라니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인 테레레<sup>18)</sup>를 마신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위를 통해 문화적 동질감을 느낀다. 과라니어를 구사하는 것과 테레레를 음용하는 것은 남녀노소, 계층에 관계없이 파라과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18) 테레레(tereré)는 파라과이의 전통차의 일종으로 아주 차갑게 해서 여름에 마신다. 마시는 법은 소밭이나 나무, 은으로 만든 괘파(guampa)라 불리는 컵에 봄비아(bombilla)라 불리는 빨대를 꽂은 후 제르바(yerba)를 넣고 얼음물을 부어 빨아먹는다. 특징적인 것은 친구나 가족끼리 하나의 봄비아를 돌려서 마시면서 친교를 나눈다. 이와 비슷한 마테(mate)는 겨울에 뜨겁게 해서 마시는 차로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서남부지역에서도 마신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라니어 활용은 언론에서도 두드러진다. 파라과이의 주요 방송인 채널 4번과 9번<sup>19)</sup>에서는 한국의 ‘공익광고’와 유사한 국가홍보 광고가 끊임 없이 방영된다. ‘공익광고’의 마지막 장면에는 “냐모 푸아 파라과이”(ñamo puá paraguay)라는 과라니어 자막과 함께 큼직한 파라과이 국기가 광고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문구는 니카노르 두아르테<sup>20)</sup> 정부시절에 야심차게 사용한 것이다. 글귀의 내용은 “파라과이를 일으켜 세우자”라는 의미로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각종 공공 서비스 기관 등 곳곳에 붙어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으로서 과라니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식민시기 원주민과 메스티소에 의해 지지되었던 과라니어는 국가 공식어 지정 이후 일상과 민족 언어의 차원을 넘어 국가 통합의 기제로서 민족주의 담론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각 시기별 정치·경제적 주체 세력은 다르지만 과라니어가 파라과이 민족국가 형성에 기여했으며, 민족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V. 결론

본 연구는 과라니어가 파라과이 민족국가 형성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밝힘으로서 근대주의·민족주의 시각의 한계를 에스노 심볼리즘을 통해 보완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대주의 입장의 학자, 특히 앤더슨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를 보편적인 요소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파라과이의 사례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족주의도 각 국가의 역사와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특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 채널 4번의 방송사 이름은 텔레푸투로(Telefuturo)이며, 채널 9번의 방송사 이름은 SNT 세로 코라(SNT Cerro Corá)이다.

20) 니카노르 두아르테 푸루토스(Nicanor Duarte Furutos)는 2003년부터 5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과라니어가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시기 파라과이 지방의 지리적·사회적 조건 때문이었다. 특히 예수회는 과라니어가 파라과이에서 일상 언어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파라과이의 지리적 폐쇄성은 예수회가 본국의 영향에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은 교육기관 설립을 더디게 하였고, 이로 인해 스페인어 보급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식민시기 파라과이의 여러 조건들은 과라니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일상 언어로 자리 잡은 과라니어는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의 독립과 함께 파라과이의 정체성을 대변하였고,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보다 먼저 독립을 쟁취하였다. 파라과이의 독립 선언과 문서 작성은 크리오요가 했지만, 타 식민 지방과 파라과이 식민 지방의 경계를 규정한 집합의식은 메스티소와 원주민들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 인해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원주민 언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으며, 그 언어는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민 시기부터 지속된 과라니어를 통한 ‘아래’로 부더의 민족의식은 19세기 정부의 탄압에도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20세기 이후에는 민간영역의 원주민 문화보호 운동과 국가 공용어 지정을 통해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필자는 원주민의 문화가 라틴아메리카의 국가와 민족 형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언어 이외에 다양한 과라니 문화를 살펴보지 못하여 파라과이 민족국가 형성에 있어 원주민 유산의 역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실제로 파라과이의 민족의식에는 과라니어와 관련된 신화와 의례, 종교, 음식, 의복 등 다양한 원주민적인 문화 요소들이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총체적인 과라니 문화에 관한 분석은 제도적 혹은 정치적 측면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층문화가 민족주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Abstract ■

Este artículo demuestra el proceso de la formación de estado-nación de Paraguay por el idioma guaraní. Según los modernistas, nacionalismo ha sido creado por la ‘élite’ clase durante la época moderna. Los modernistas analizan solamente los élites de la época moderna para entender el proceso de la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de América Latina. Sin embargo, este ensayo indica que el caso de Paraguay es distinto comparando con otr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Paraguay es el único país que utiliza un idioma indígena como un idioma cotidiano y la lengua oficial del estado. Aquellos que influyen en la formación del estado-nación del Paraguay no fueron los élites sino los indígenas, los meztizos y los jesuitas.

Este ensayo argumenta que hay tres causas que se conservaron el idioma guaraní desde la época colonial hasta ahora. Primero, el control de España no ha podido llegar a Paraguay por su ubicación geográfica aislada. Segundo, los jesuitas fueron influyentes en la Provincia del Paraguay. Ellos conservaron la raza guaraní, su idioma y su cultura dentro de las reducciones. Tercero, ya que se empezó muy tarde la educación moderna, el idioma guaraní no fue tan afectado por el idioma español. Así que el idioma guaraní es un símbolo de nacionalismo paraguayo.

Key Words: Estado-Nación, Lengua oficial del estado, Idioma Guaraní, Paraguay, Jesuita / 민족국가, 국가 공용어, 파라니어, 파라과이, 예수회

논문투고일자: 2010. 07. 06

심사완료일자: 2010. 08. 09

게재확정일자: 2010. 08. 09

■ 참고문헌 ■

- 구경모(2008), 「유럽계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과이레뇨(Guaireño)의 타자화: 파라과이 비야리카(Villarrica)시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Vol. 14, No. 2, pp. 5-36.
- 김경희(2007), 「파라과이의 언어정책 변천과정과 이중 언어 현황」,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9, No. 2, pp. 173-196.
- 김세건(2005), 「메스티소와 원주민 사이에서: 멕시코 국민주의와 원주민 종족성」, *종족과 민족*, 아카넷, pp. 213-249.
- Anderson, Benedict(2003),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 Bejarano, Ramon(1980), *Indigenas paraguayos: epoca colonial*, Asunción: Editorial Toledo.
- Cardozo, Efraín(1996), *Apuntes de la historia cultural del Paraguay*, Asunción: El Lector.
- DGEEC(2004a), *Censo nacional de población y viviendas año 2002*, Fernando de la Mora: deeeepublicaciones.
- \_\_\_\_\_ (2004b), *Pueblos indígenas del Paraguay: II censo nacional indígena de población y viviendas 2002*, Fernando de la Mora: deeeepublicaciones.
- Durán, Estragó M.(1998), “La colonización,” en Shardi M. Chase(ed.), *Crónica histórica ilustrada del Paraguay I*, Buenos Aires: Distribuidora Quevedo.
- Godoy, Lucio(2004), “Reseña histórica del idioma guaraní,” *Suplemento Antropológico*, Vol. 34, No. 1, pp. 247-273.
- Morales, Gómez(1998), “Cultura popular y medios masivos en Paraguay,” *Un Planteamiento Ético*, Asunción: Fundación en Alianza.
- González, Natalicio(1996), *Proceso y formación de la cultura paraguaya*, Asunción: El Lector.
- Hobsbawm, Eric(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ge: Cambrige University Press.
- Meliá, B.(1992), *La lengua guaraní el Paraguay*, Madrid: MAPFRE.
- \_\_\_\_\_ (1993), *El guaraní conquistado y reducido*, Asunción: Centro Estudio Antropologico de Universidad Católica.
- \_\_\_\_\_ (1995), *Elogio de la lengua guaraní*, Asunción: CEPAG.
- \_\_\_\_\_ (1997), *Una nación dos cultura*, Asunción: CEPAG.
- \_\_\_\_\_ (2004), *La lengua guaraní en el Paraguay colonial*, Asunción: Antonio Guach.
- Morinigo, M.(1990), *Raí y destino del guaraní*, Asunción: Universidad Católica.
- Özkirimli, Umut(2000), *Theories of Nation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London:

Macmillan Press.

- Penner, Hedy(2005), “De la construcción del bilingüismo nacional: el estudio de Joan Rubin de los años sesenta,” *Suplemento Antropológico*, Vol. 40, No. 1, pp. 571-602.
- Sanabria, Lino(2005), *Gran Diccionario Avañe'ê Ilustrado*, Asunción: Editorial Ruy Diaz.
- Smith, Anthony(1998), *Nationalism and Modernism*, London: Routledge.
- \_\_\_\_\_ (2009), *Ethno-symbolism and Nationalism: a Cultur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Susnik, Branislava(1982), *El rol de los indígenas en formación y en la vivencia del Paraguay I*, Asunción: IPEN.
- Torres, Dionisio(1997), *Cultura guaraní*, Asunción: Litocolor.
- Zuccolillo, Gabriela(2002), “Lengua y nación: el rol de las Élités Morales en la oficialización del guaraní Paraguay,” *Suplemento Antropológico*, Vol. 37, No. 2, pp. 9-308.